

봄은 단 한번도 팽목항을 찾지 않았다, 2주기에 부쳐

심한우 칼럼



“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

팽목항에는 지금도 4월의 바람이 분다. 여전히 그날의 심술궂은 추위 앞에 철저히 굴복한 상태로,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핏빛 섞인 울음소리를 실어 나른다. 역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움직임에 맞서, 가까스로 버텨온 시간이 어느덧 2년.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왜 이리 멀고도 험한 걸까. 밀려드는 조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쓸쓸한 바람이 지배하는 허무와 적막의 공간에 여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기적. 이 단어 하나에 온 국민의 염원이 실려 한반도의 남서쪽으로 보내졌던 때가 있었다. 분침과 시침의 넘어감을 애석하고도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부디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염원은 결국 체념과 좌절로 귀결돼버렸다. 그로부터 2년. 어떠한 말조차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의 죄책감과 허무함이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날은, ‘잊혀짐과의 투쟁’에 서서히 무너져 가는 우리들 앞에, 날개가 젖은 나비마냥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숨소리가 차갑다. 옷자락은 서늘하다.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무겁게 만드는 극도의 외로움이다. 이름은 봄이지만 봄이 아닌 것. 그리곤 묻는다. 그대는 진정 봄이 왔다고 생

각 하는가. 망설임도 없이 벚꽃이 피지 않았는가라고 되묻는 내게 호되게 질책한다. 이견 현상으로서의 봄이 아니라는 것. 순간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지 않았던가. 바쁘게 살아내고 있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세우며 그 외에는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며 진정한 봄이 왔다고 착각해버린 후안무치한 스스로가 보였기 때문.

궁색한 변명으로 부끄러움을 덮으며, 이것저것 찾아보는 시늉을 하다가 발견한 사실에 또 다시 놀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가라앉아 버린 희망과 그 안에 수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무엇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사라진 것.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도착한 곳의 광경에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피해자는 온데간데없고 죄인들의 탄식소리만 가득함이 그 이유.**

왈,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것을 놓아서 이리 되었을까.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를 못 받은 엄마는 모든 걸 잘못된 죄인이다”(2016)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어 스스로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려드는 이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는 자 누구

인가. 조금이라도 덜 죄스럽기 위해 절규하는 그들에게서 끝끝내 봄을 앗아 간 자 누구인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귀를 기울인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날의 진실을, 아직 오지 않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 폭우가 쏟아지는 광화문 앞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씨김굿. 조지훈이 이를 두고 애써 웃는 그들의 두 뺨에 흐르는 빛이 정작 고와서 서럽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의식이 끝난 새벽, 막이 내린 무대 앞에서 두 손 마주잡은 그들이 내년엔 부디 오늘 같은 날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라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한다.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낫기를 말이다.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이다.”(박혜정, 1986) 나는 같이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조차 가지지 못한 부끄러운 어른이다. 아니,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지음이다.

팽목항은 오늘도 비가 내렸다. 심술궂은 추위가 지배하는 그곳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누군가가 서있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이곳에 봄이 오기를. 희망이 찾아오기를. 반드시.